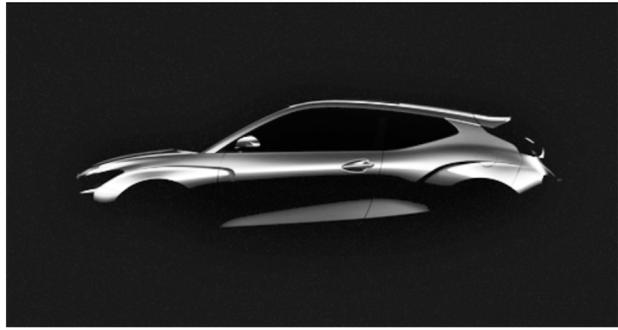


강력한 세단이 온다...픽업트럭·중대형 SUV도 대거 출격



현대차 신형 해치백 '벨로스터'

세계 5대 모터쇼 중 하나인 '2018 북미 국제 오토쇼'(NAIAS·디트로이트 모터쇼)가 오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막을 올린다. 이달 28일까지 개최되는 디트로이트 모터쇼는 글로벌 제조사들의 올해 전략과 신차를 한 데 볼 수 있는 무대인 만큼 관심은 여전하다.

8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올해는 미국 제너럴 모터스(GM)와 도요타를 비롯한 30개 안팎의 완성차 업체가 20여종 이상의 신차를 공개하며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우선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열풍으로 주목했던 세단이 강력한 성능과 새로운 디자인을 무기로 돌아온다.

독일 BMW는 상품성 및 주행성능을 강화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스포츠카인 신형 i8 쿠페를 공개한다.

신형 i8 쿠페는 엔진과 전기 모터 합산 출력 374마력의 강력한 성능을 갖췄다. 배터리의 성능이 개선돼 파워는 105kW로 세졌고, 1회 충전 시 전기 모드만으로 최대 53km 주행이 가능하다.

아우디는 7년 만에 풀체인지(완전변경)된 신형 A7 스포츠백을 내놓는다.

A7은 A6의 차대와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개발된 4도어 쿠페로, 대형 리어 게이트를 갖고 있어 스포츠백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3.0ℓ V6 TFSI 가솔린 터보 엔진과 7단 자동변속기가 결합해 최고출력

새해 주목받는 신차는 ... 미리보는 '디트로이트 모터쇼'

13일 개막 ... 30개 안팎 완성차 업체 20여종 신차 출시
현대차 7년만에 풀체인지 신형 해치백 벨로스터 첫 공개
벤츠 AMG CLS 53 PHEV·G-클래스 신모델 기대작

340마력, 최대토크 51.2kg·m의 힘을 발휘한다.

폭스바겐은 준중형 세단 제타의 2019년형 모델을 선보인다. 앞서 공개된 외관 이미지만으로는 이전 모델보다 디자인이 더욱 매끈하고 고급스러워진 게 눈에 띈다.

일본의 도요타는 대형 세단 아발론의 5세대 신모델을 공개한다.

6년 만에 풀체인지를 거친 아발론은 구체적인 제원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V6 3.5ℓ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300마력 이상의 힘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혼다는 대표 하이브리드(HEV) 세단인 인사이트의 프로토타입을 내놓는다.

인사이트는 1999년 미국 시장에 도입돼 미국 최초의 양산 하이브리드카에 이름을 올린 차다. 2014년 생산이 종료됐다가 이번에 3세대 버전으로 부활을 알린다.

인피니티는 Q70을 이을 차세대 플래그

십 세단의 콘셉트카를 선보인다. 공개된 티저 이미지를 보면 인피니티 고유의 날카로운 로울과 곡선이 조화를 이루고 헤드라이트가 더욱 날렵해진 게 특징이다.

현대차는 7년 만에 풀체인지된 신형 해치백 벨로스터를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신형 벨로스터는 외관 디자인의 쿠페 느낌이 더욱 강해졌고 지붕 높이가 주행성이 1세대 모델보다 개선됐다. 1.4터보, 1.6터보 등 두 가지 가솔린 엔진 모델의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차례로 내놓을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번 모터쇼에서 데뷔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차는 메르세데스-벤츠의 AMG CLS 53 PHEV, GM 쉐보레의 미드십 쿠페 C8, 포드의 머스탱 셸비 GT500 및 머스탱 블리트(Bullitt) 등이다.

미국 소비자가 선호하는 픽업트럭과 중



일본 도요타 5세대 신모델 '아발론'

대형 SUV도 대거 모습을 드러낸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미국 전통 픽업트럭 강자들의 정면 승부다.

쉐보레는 1918년 첫 트럭을 생산한 지 100년이 되는 해를 맞아 대형 픽업트럭인 실버라도의 신모델을 선보인다.

피아트 크라이슬러(FCA)는 대형 픽업트럭 램 1500의 풀체인지 모델을 내놓을 예정이다.

포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중형 픽업트럭인 신형 레인저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양산 예정인 이 모델은 2011년 이후 북미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었다.

지프는 중형 SUV 체로키의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버전을 선보인다. 일체형의

헤드라이트를 적용하고 새 디자인의 리어 콤팩테이션 램프를 추가하는 등 얼굴이 싹 바뀌었다.

BMW는 신형 SAV(스포츠 액티비티 비하클) X2의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한다. X1과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면서도 쿠페 형태의 더욱 수려한 외관이 특징이다.

풀체인지를 거친 벤츠 G-클래스 신모델도 기대작 중 하나다.

G-클래스는 1972년 1세대 모델 출시 이후 45년간 기본적인 디자인을 유지해 왔다. 이번에도 전면 디자인은 그대로 계속했으나 LED 헤드램프, 범퍼 등이 부분적으로 변경됐으며 새 플랫폼이 적용됐다.

연합뉴스

벤츠, 지난해 수입차시장 최초 연간 6만대 판매

2년 연속 점유율 1위

신규등록 수입차 총 23만대

메르세데스-벤츠가 지난해 수입차 시장에서 최초로 연간 6만대 판매 기록을 세우며 2년 연속 점유율 1위에 올랐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벤츠는 작년 한 해 총 6만8861대를 팔아 BMW(5만9624대)를 제치고 브랜드별

등록 대수 기준 1위를 차지했다.

3위는 렉스(1만2603대)였고 도요타(1만1698대), 랜드로버(1만740대), 포드(1만727대), 혼다(1만299대) 등이 나란히 1만대 고지를 넘었다.

지난해 12월 한 달만 놓고 보면 BMW가 총 6807대를 판매해 벤츠(3959대)를 앞섰다.

2017년 베스트셀링 모델에는 BMW 520d(9688대)가 이름을 올렸다.

2위는 렉스 ES300h(7627대)가 차지했으며 벤츠 E300 4매틱(7231대), 벤츠 E220d(6232대), 벤츠 E200(5796대) 등이 뒤를 이었다. BMW 520d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베스트셀링 1위(1493대)를 기록했다.

작년 한 해 신규등록된 수입차는 총 23만3088대로 2016년(22만5279대) 대비 3.5% 증가했다.

수입차협회 관계자는 "아우디, 폭스바겐의 판매 증만으로 인해 성장 폭이 제

한돼 전년보다 전체 판매가 약간 늘었다"고 설명했다.

12월 기준 수입차 신규등록 대수는 전월보다 8.3% 증가한 2만428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연료별 등록 대수를 보면 점유율(47.2%)이 가솔린차(43.0%)를 앞섰다.

하이브리드차의 비중은 9.8%로 전년 대비 2.6%포인트 늘었고 전기차 비중은 0.1%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줄었다.

국가별로는 독일 등 유럽 브랜드의 비중이 72.7%에 달했으며 일본 차는 18.7%, 미국 차는 8.6%의 점유율을 각각 기록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차보험 대체부품 사용시 수리비 일부 현금으로 돌려준다

이달 31일부터 적용

이달 3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차 수리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특약이 이달 31일부터 적용된다.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는 해당 특약을 내놓았고 나머지 손보사도 이달 말 선보일 예정이다.

대체부품 특약은 자동차를 수리할 때 순정부품이 아닌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것이다.

대체부품 가격은 순정부품 60% 수준인데, 재수리비나 가격변동 대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차차) 사고 가운데 단독 차차 사고이거나 가입자 과실 비율이 100%인 경우에만 한정된다.

전봇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손상된 경우 등에 적용된다. 다른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을 땐 가입자 책임이 100%인 상황에만 해당된다.

상대방 차량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대체부품 특약을 적용하면 수리비 인화 효과가 상대 운전자에게도 돌아가서 특약 가입자가 환급받는 돈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특약은 자동가입되며 보험료 변동은 없다. 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특약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이 적용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인증한 대체부품만 해당한다.

정부는 차량 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심사해 순정부품과 차이가 없음을 보증하는 제도다.

지금은 외제차 대체부품만 있다. 완성차 업계 디자인권(보호기간 20년)으로 인해 국산차 대체부품은 활성화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토교통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산차 대체부품만 늘기로 했다.

연합뉴스

"자율주행차 2040년 신차 판매의 26% 차지"

IHS 마켓 조사

약 20년 뒤에는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신차 10대 중 3대가 자율주행차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 마켓에 따르면 오는 2040년 전 세계적으로 연간 3370

만대의 자율주행차가 판매돼 전체 신차 판매의 26%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레벨 4~5단계의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40년 자율주행차 보급대수에 대한 전망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다른 시장조사업체인 스트래티지 애널리

틱스(SA)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5년 전문가들은 2040년 자율주행차 판매량이 700만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전망치는 이듬해 2000만대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는 3000만대 수준까지 증가했다.

IHS 마켓은 차량 호출·공유(라이드 헤일링:ride-hailing) 서비스 확산과 함께 서서히 자율주행차의 대중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께 우버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들이 먼저 자율주행차를 도입해 플릿

(fleet) 개념으로 운영하다가, 기술 및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면서 2021년에는 개인이 직접 자율주행차를 소유하기 시작할 거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자율주행차 판매량은 2021년 5만1000대에서 2025년 100만대, 2040년 3370만대로 2021년 이후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로는 2019년 미국에 이어 2021년 유럽과 중국 순으로 자율주행차 도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적은만큼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초대 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블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한솔도시락 서영대점 북구 운암동 885-35번지 모든 도시락 포장가능 단체도시락 주문 받습니다. 대표 김용경 ☎062)524-6078, 010-3152-0739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교원 빨간펜 남광주센터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수 있는 선생님을 모십니다. 통합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취득가능 ☎010-3613-3145	제주흑돼지 전문점 꽃담 동구 밤살로 48-1 (법원 뒤편) 제주흑돼지 삼겹살 제주 오겹살 (영업시간 오후3시~) ☎062)233-9992	바른글씨교정원 북구 서암대로 186 성지빌딩 3층 전담전문사거리 약림글씨 책임교정원, 학원생 수시모집 교대, 사대, 임용반, 취업반, 강사반 원장 직접 개인지도 ☎062)525-9933, 010-8703-3378	하안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동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컬레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금복식당 동구 공동 55-2(카톨릭센터 뒤) 찜탕, 계절 생선매운탕 전문 대표 김용범 ☎062)236-3177	고전방 동구 공동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메타루이펜션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377-1번지 편백과 황토로 지은 자연건강 속속 (가족탕 겸함) 담양프로방스 예약받습니다. ☎062)464-0692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일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가득 동구 예술의길 31-16 동부고시학원 3층 뷔페백반 전문 대표 전옥희 ☎062)222-0589	무크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58호 세련된 디자인의 신상품 대량 입고 10%~40% 할인 (일부품목 제외) ☎062)370-9258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전병양 ☎062)263-2223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예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1-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천수사백마장군 북구 중흥동 800-28 동부교육정보로 인생상담, 병점, 사주, 궁합, 부적 영로 봅니다. 대표 허길배 ☎010-2828-2008